일 주 문



생명나눔, 자비나눔기금 전달

일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스님은 3월 9일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원담스님 9주기 추모다례재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3월 9일 수덕사에서 덕숭총림 3대 방장 원담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다례재를 진행했다.



전국비구니회 정기총회

육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은 3월 31일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마음쉼 3기 명상교실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3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마음쉼' 3기 명상교실을 진행한다. (02)2650-2213

스님 사후재산, 승려복지기금 전달

故선후 스님 유족, 5000만원 기탁



2016년 8월 입적한 수덕사 선후 스님 유족이 스님의 사후재산을 승려복지기금으로 기탁해 교계 안팎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선후 스님 유족은 3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써달라며 승려복지기금 5000만원을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전달했다.

승려복지회 측은 "승려복지제도가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선후 스님 유족의 사후재산 기증을 계기로 하루빨리 건강한 승가공동체가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화촉 **유윤정 〈월간 불광〉 기자**

유윤정 〈월간 불광〉 기자는 4월 2일 서울 삼성역 스카이뷰 섬유센터 17층 웨딩홀서 신랑 박선영 씨와 화촉을 올린다. (02)528-4098~9

"국가 새틀 짜는 시기 국민 정신 향상에 기여"

Interview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물질 추구서 정의·윤리 확립 전환
소외계층 보듬는데 종교역할 강조
공무원불자조직 확대 임기 내 목표

"국가 제도에만 의지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덕과 윤리 등 정신에 관한 향상보다 물질을 보다 많이 얻는 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요.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불교를 포함한 종교가 제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사진〉은 3월 8일 공불련 신년간담회를 통해 최순실 사태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이번 최순실 사태 밑바탕에는 '빨리 잘 살아야 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속이며 과업 만을 쌓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종교의 타락도 이런 사회분위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지금은 국가 정신 중심기제가 흔들린 상태이기에 종교계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저성장 시대를 맞아 양극화 문제 등 빈부격차 해소에 불교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저성장 시대, 이제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각자가 보시와 자선활동을 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정국에서도 물질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후보가 더 많은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공식 취임한 김 회장은 취임 후 매월 셋째주 금요일 조계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공무원 불자 회원들이 한자리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참석 인원도 점차 늘어 100여 명을 넘어섰다.

김 회장은 "월례법회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지만 향후 다른 이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공무원 조직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재미있게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취임 이후 공불련은 각 부처 불자회 조직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성지순례 등을 통해 신심 증장도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통일부, 조달청, 기재부 등에서도 불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법회를 통해서 불자회 조직이 즐겁고 좋구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결정할 일이 많아지는데, 불교 수행이 식견을 높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공무원 불자들이 함께 수행을 통해 공직에서 맡은바 임무를 원할히 잘 해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염불'을 공불련서 하고 싶다"며 "6월 정기법회에 이어 7월말 부탄 해외성지순례를 통해 신심 고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시기는 국민들을 한데 묶을 정신적인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 불교가 다시금 우리 사회를 위해 앞장섰으면 합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회원 사찰 유대 강화에 매진"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자관 스님



"부산 동래구 각 사찰 스님들과의 유대를 강화, 지역민과 불자들이 부처님의 불성 광명에 머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 신임회장 자관 스님〈사진〉은 3월 5일 부산 자비암에서 열린 연합회장 취임법회에서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1월 1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각종 활동에 전념, 3월 5일에서야 회장 취임식을 열게 됐다.

스님은 이날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회원사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월 임기 시작 후 사찰 5곳에 불과했던 회원 사찰을 45곳으로 늘리기도 했다.

자관 스님은 "직접 조사한 결과 부산 동래구에 110여 개의 사찰이 있다. 하지만 현재 45개 사찰 만이 동래구불교연합회에 가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부산불교연합회에 등록된 동래구 사찰 87개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많은 회원 사찰 가입을 유도해 동래구를 시작으로 부산이 불심 도시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사찰 확보와 함께 동래구불교연합회는 경로잔치, 관공서 방문, 대중공양 및 대법회 등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한 대외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립 후 그동안 동래구불교연합회는 동래구청 산불방지 요원 경방복 지원, 장학금 전달 10회, 경로잔치 4회, 동래 경찰서 및 소방서 투병 직원 지원, 다자녀 가정과 노부모 봉양자 지원 등을 진행해 왔다.

자비암에서 다년간 경로잔치를 여는 등 자비나눔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인 자관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이어 갈 뿐 아니라 자체 특강을 진행해 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취임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을 비롯해 동래구불교연합회원 스님과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자비의 쌀 20kg 100포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관응당 지수 스님 13주기 다례재



김천 직지사 중암(주지 도진)은 3월 6일 '관응당 지수 대종사 원적 13주기'를 맞아 경내 영산대보전에서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 문도 어른 덕해 스님, 중암 주지 도진 스님, 관응문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관응 문도 측은 "13주기를 맞은 이날까지 잊지 않고 참석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봉은사·강남경찰서 업무협약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강남경찰서와 '주민 참여적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2월 27일 법왕루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봉은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템플스테이체험 등을 강남경찰서와 공동수행하는 한편, 경찰관 및 군복무 의경들에게 위문품·문화체험·장학금 등 지원한다. (02)3218-483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천태종 대구 대성사 졸업·입학식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3월 4일 금강불교대학 제12회 졸업(수료)식 및 제14회 입학식을 경내 서원당 3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식장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장화사 주지 홍법 스님,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윤수현 대성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제12회 졸업식에선 1학년 34명 수료, 2학년 35명이 졸업했고, 신입생은 100명이 입학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